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 비성경적인 내용이 됩니다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피의 작용이라고 오늘날 세상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게 움직이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고로 피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면(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는 조상의 피가 우리에게 온 것이 공중하늘에서 떨어진 피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피가 우리에게 온 고로 이제 그대로 조상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조상님들은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하면서 행복을 누렸던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비록 고택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근심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영원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살았던 경험이 있는 조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영원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살았고, 죽음을 모르는 가운데서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회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는 행복하게 살았던 피요, 우리 조상들의 피는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고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고택을 그리워하고 고택을 동경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고택이 행복한 동산이었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로 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쁘게 희열의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행복을 동경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며 사람마다 누구든지 고택이 없는 가뭄의 동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것은 바

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그 행복한 동산에서 살다온 경험이 있는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고로, 그러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고택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한 고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을 누려본 우리 조상의 피가 후손들 속에 흐르고 있는 까닭에 사람 사람마다 이제나 내제나 저제나 내제나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죽을 때에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하면서 행복을 누려왔던 그러한 조상님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날아다녀 보았던 경험이 있었다

우리 사람 사람마다 날아다니는 꿈은 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꿈이라는 것은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이제 그대로 핏속에 녹음되어 있다가 녹음되어 있는 그 피가 풀려져 가지고 그대로 꿈으로 재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날아다녀 보았던 경험이 있는 고로 그 경험 있는 조상의 피가 후손들 속에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한다고 해야 이치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써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신들이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6)”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전부 신이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전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한 말이죠? 지존자가 하나님이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니라(신명기 14:1)”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와 자녀니라(요한서 1:2)” 역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써여져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사실을 숨기 위해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자기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 비성경적인 말을 했는데 바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

다. 또 “내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제 십계명에 써여져 있어

요. 그런데 예수가 그제 하나님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이지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 중에 기본법이에요. 기본법도 어기면서 성경적으로 믿는다면 그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3분의 2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지구상 위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아무리 크지만은 기독교는 구원론을 몰라요. 구원론을 모르고 신과 영을 몰라요.

구원론을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똥 위에 똥파리가 앉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범죄한데 입할 수 없습니까? 성령은 죄인한테 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그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그것은 비진리의 말씀이요, 조작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성령이 사람들한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을 논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대로 성경에는 의인이야 구원을 얻지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름은 열 두 아들 중 단에게만 심판권을 주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우선 구세주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어느 민족에서 태어날 것이 성경에는 써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랬죠. 또 이제 “참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름이가 열 두 아들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서 49장에 써여져 있어요. 그런데 열 두 아들 중에 단에게는 심판권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창세기서 49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왕 예수가 구세주라고 기독교에서는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구세주라면 이제 예수의 조상이 되는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한 것을 알아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9절에 써여져 있어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홀이 함께 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홀이라는 건 히브리어예요. 그걸 번역하면 왕권이에요. 왕권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세상에서 지금 인류의 3분의 2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현재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함께 하긴 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만 왕 노릇한다는 뜻

입니다. 이 실로가 바로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구세주예요. 바로 구세주가 나타날 때까지만 죄악세상에서 마귀인 고로 왕 노릇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동방 땅 꿀 땅 모퉁이(한국)에서 나온다

성경구절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날 때까지라고 하였는데, 구세주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방나라라 하면 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나라와 일본 나라를 가리켜서 동방나라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 ‘섬들이 잠잠하라’ 하는 것은 아무리 일본나라가 동방나라지만 섬나라인 고로 너는 조용히 있어라. 즉 너희 섬나라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다는 애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했으니 세계 왕들이 다 와서 이 동방의 의인 앞에 와서 굴복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나라가 대륙으로부터 쪽 빠져나온 땅인데다 땅 끝이요 모퉁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한국 땅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구세주니까 이 세계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지, 이 세계 왕들이 평민한테 와서 무릎 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세주라는 자는 전지전능자입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합니다. 풍운조화도 마음대로 하고, 비도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태풍도 불어오지 못하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이제 또한 세계 공산주의들을 그대로 그냥 순간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게 전지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 속에 속 들어가서 사람 속에 있는 마귀새끼를 죽여 없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22일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 박명하



나라는 것을 어떻게 죽이느냐

의인에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님(이긴자)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과연 나라를 짓는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 나라를 자존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살아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무조건 순종을 해야 이기게 돼

해와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물레이 사람을 불러 남의 집 가마니를 도둑질해 오라고 하셨다. 밀실 식구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 밤중에 벌어진 일이다. “예, 알았습니다”하고 밀실 근처 인근의 마을을 찾아갔다. 물레 남의 집 담을 넘어 두리번거리며 가마니를 찾아 도둑질 해 왔다. “해와 주님, 가마니를 훔쳐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해와이긴자는 영통하게도 “이 도둑놈의 새끼야. 누가 가마니를 훔쳐오라고 했어.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 만약 들기면 너는 지옥이야!” 하며 호통을 치셨다. 무사히 훔쳐가지고 올 때만해도 잘했다고 칭찬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말이 그렇지 흠쳐 올 때는 그런대로 쉽다. 그런데 갖다 놓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들기지 않게 갖다 놓는 것은 더 힘들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슨 은혜자라는 사람이 왜 도둑질을 시킬까?” 하는 마음이 들 텐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나무와 같은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죽게 되면, 날이 맑게 갠 쾌청한 일기인데도 해와 주님께서 “밖에 비가 오지?” 하면 “예” 하는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날씨가 맑아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 반항하는 ‘이유 변명 죄가 되는 것이다. 자유율법적으로 심판하면, 내가 살아서 동물성(마귀)과 같은 죄가 여전히 남았다가 되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나라는 자존심 마귀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시험과 연단의 층이 가일층 고도로 올라가게 되었다.

한번은 해와 주님께서 30여 명의 밀실 식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조사장, 전기세 낼 돈 20만 원을 왜 도둑질해 갔어? 당장 가져 와!”라고 호통을



흠쳐온 가마니를 다시 갖다 놓는 것이 더 어려웠다/ 그림 박준구 정로

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밀실에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매일같이 중노동을 하고 해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이었다. 돈을 관리하는 형제는 따로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람 보고 전기세를 훔쳐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둑질했다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이유 변명죄가 될 것이고,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마음이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권위를 실추시키는 죄가 된다. 게다가 다른 형제가 오해하면 몰라도 이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고, 속마음까지 들

여다볼 정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해와주님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과 의구심을 갖게 되면 ‘섭섭한 음란죄, 말가지 못 하는 의심죄’에 여지없이 걸리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제가 입고 있는 의복도, 마음속으로 “제가 입고 있는 의복도, 이 몸과 마음과 생명 모두가 다 ‘당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니 도둑놈이 맞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아시고 이러한 시험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자세와 태도를 가졌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야

그 순간 해와 주님께서 큰 소리로 “폴도 보기 싫으니 나가!” 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닌 것이다. 잘 참고 ‘이기다’는 뜻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하여 나올 때는 얼굴이 벌개져서 정말 도둑질해서 잘못된 것처럼 엉겨주춤해서 조심조심 물러났던 것이다. 판 형제들은 ‘조사

장이 점잖은 줄 알았더니 어처구니 없게 도둑질을 하였구나.’ 하고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다. 진심으로 나라를 짓는 것을 발사구니 때보다 못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눈에는 도둑놈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내 맘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하여도 자유율법에 걸리는 고로 생각의 자유가 없다. 나라의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을 공공 뷰어 놓고, 움짱 달짝 못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험과 연단을 거쳤던 것이다. 행여 누가 이야기를 걸어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접된 후,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일 정도였다.

그렇게 내 생각을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 자연스럽게 행동과 말이 온전해지게 되고 죄와 상관 없는 인간으로 개조가 되었던 것이다. 성경에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처럼 온전히 어린이이로 만드는 연단이었다는 것이다.*